

외통을 노림은 청맹과니



李 丙 疇
(동국대학교수·국문학)

◎ 바지랑대로
별 따는 똥단지

서울에서는 밝은 별을 보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바지랑대로 별을 따려는 똥단지도 없다. 실로 티없던 동심의 그제가 되고 말았다. 그 천진난만이 과학문명의 덕으로 사라졌다면 개운치는 앓다. 그 엉뚱이 설익은 기계문명에 짓눌려 웃음거리로 똥다는 것은 이러구러 곱끄러운 현상이다. 꿈이 사라져서다. 웃목의 콩나물 시루에서 <나의 발견장>이 버젓한 교재로 읽혔고, 종이비행기를 접어 제트기와 내기를 했던 생활소재가 현상작품으로 당선됐었는데, 요새는 대중없이 허약해서 한결같이 우직한 놀림감으로 둔갑했으니, 전자오락에 쏠릴 밖에.

슬기를 짜내기에 앞선 기계화의 장난감은 결국 생각하는 동안마저 빼앗아 그야말로 기계화의 볼모로 키우니 하가에 궁리하는 버릇을 돌굴 나위가 없다.

물론 실리콘에 의한 새로운 발명이 나오고, 세상을 놀래는 로봇트가 없는 바는 아니지만, 그것은 그나마 과학과 기술에 의한 반기요, 기능올림픽의 금메달 역시 온실의 꽃일 따름이니, 이는 모두가 기초과학이 보편화하지 못한 까닭으로 안다. 과학과 기술이 외통을 노리는 것은 수준급에 다다랐을 때 박차가 가해지지 받침이

없는 과학과 기술은 모래성에 불과한 청맹과니다.

◎ 인쇄문화와 과학의 안간힘

우리는 진작 <고려대장경>의 자랑을 누렸다. 그것이 목적이야 어떻든 해내고야 말겠다는 다부진 일체감이 못내는 인쇄문화의 길을 열었다. 그래서 癸未字의 동활자가 나왔는가 하면 甲寅字의 구조까지 낳았다. 그런가 하면 목판의 실효를 되살려 훈민정음의 보급과 그 실용화를 꾀한 대대적인 번역본의 板刊으로 우리의 인쇄문화는 공전절후의 발판을 굳혔었다. 정녕 슬겨운 발자국이였다.

이에 다다라 목판에서 활자를 낳은 匠人의 슬기와, 다시 활판의 실리가 격증하는 需給에 밀려 이를 목판으로 바꾸다 보니 도리어 발달에 의 썩기가 똥다. 곧 활자의 개발도 목판의 발달도 주춤하는 빌미가 되어 비록 大本을 中本으로, 활자를 목활자로, 정교한 목판이 사판으로 바뀌었지만 장인의 기술은 발전은 커녕 한갓 담습으로 전지했을 뿐이다. 더우기 임진과 병자의 난리로 인한 시설의 약탈과 파괴는 그마저 헤식게 했으니, 이는 장인에 대한 푸대접이 그 요인이기도 했다.

◎ 조총에 찌들은 창과 화살

자연과학자 니담이 일본에 초청돼서 토쿄대학에서 강연한 기사를 보고 새삼 느낀 바 있었다.

“화약을 동양에 갖고와서 당신네 일본인은 사람 죽이는데 약삭빠르게 썼으나, 중국인과 한국인은 그것을 평화적인 폭죽과 딱총에 썼다”는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우리라고 화기를 발명하지 못한 바도 아닌데, 그 놀라운 기술에 기겁을 한 벼슬아치들로 해서 작살됐고, 우리는 거북선으로 왜선을 무찔렀건만 그 창조적 과학기술을 되려 목살했으니 도시 누구를 탓하라.

유학도 그렇다. 물론 역성혁명을 단행했으니 개혁은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2천년의 물림상을 현신짜같이 버리자니 불교의 울력이 아침 이슬처럼 삭을 수는 없었다. 여기에 이른바 중도사상이 절실한데 덧없이 억압을 단행한 그 미련이 우리로 하여금 제자리 걸음을 먼치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민간신앙에 깊이 절은 불교에 맞선 성리학을 받자한 당시의 진취성은 도도했지만 전통사상을 중화하는데 너무 인색했다. 중국인처럼 몽고의 말발굽에 짓밟혀도 자기의 쓸개는 간직한채 적의 쓸개를 꺼내는 응물이 부실했고, 일본인처럼 양칼진 양끼도 없으면서 오로지 끈덕진 끈기로 버티는 고집이 장인의 기술을 호령으로 눌러 솟제 점잔만 부리자니 그 낮보는 下待에 뒤지느니 나라살림이었다. 따라서 조총을 앞세운 왜군에 제법 써보지도 못한 창의요 화살이었으니 생각사록 딱한 그제다.

◎ 컴퓨터를 부리는 뒤안길

주판 대신에 계산기가 판을 치고, 퍼스널 컴퓨터가 세난다. 보채는 선진을 위해 반가운 밀물이다. 그러나 그 입력은 분명 인간의 두뇌인데 어찌자고 기초과학은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는지 한심하다. 남의 힘을 빌더라도 그 원리는 익혀야 남이 아닌 내가 되는데 거기에는 전혀 인색하니 어이가 없다.

유전공학이 밀어닥치면 그리로 쏘리고, 광통신이 현사되니까 너도 나도 송사리떼처럼 물리

는 폐단은 정말 야단이다. 남의 그림자나 따르다간 앞장은 어림도 없다. 추월은 모방만으로는 안된다. 과학과 기술의 협력이 아니고는 개척은 기대할 수 없다. 당장의 앞가림은 눈가림이지 전진에의 지름길은 못된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물에 가서 송능을 달랠 수도 없다. 일본의 경제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 우선 기초과학의 씨, 그것도 토실토실한 씨를 뿌려 복돋아 가꾸는 조심이 절대적이다. 저 제나라 환공이 목수의 톱질을 물었을 때, 이 기술은 말로는 안되고 손수 다뤄보지 않고는 힘의 안배가 안된다는 얘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당면한 선결문제가 아닌가 한다. 과학은 이론이고 기술은 실체라고 따로 놀다간 속이 빈 강정처럼 옹골차지 못하다.

◎ 과학과 기술과 문화

세상에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어리석은 요동백시는 없다. 땅은 생이지지의 천재가 있기는 해도 그것은 만의 하나다. 요행을 바람은 기적을 바라는 허풍서니다.

고려의 이제현이 원나라에 가서 안목을 높였기 때문에 그가 됐고, 김정희가 청나라에 건너가 본고장의 글씨를 보고 익혔기 때문에 그로 자랐다. 땀은 이순신과 정약용의 독창적인 두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돌연변이다. 사뭇 시시각각으로 발전하는 이 살얼음판에 시야가 널빤지 못하다간 지레 뒤통수를 맞기 마련인 요지경같은 오늘이다.

모름지기 외통을 노리는 승부는 마술사의 변수다. 선불은 독주는 청맹과니의 비로솜이다. 이는 주자학에 심취한 나머지 이론에 치우쳐 실천궁행의 양명학을 사문난적으로 몰다가 나라를 망친 보기와도 같다. 과학과 기술이 어울린 곳에 중진을 넘은 선진의 보람찬 고지가 땀땀하다.